

## 毒性발생요인 제거에 힘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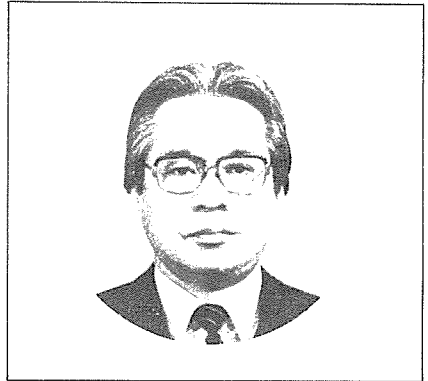
### 독성연구소 설치 등 長期的대처방안 강구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化學物質의 合成생산 및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피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毒性化學물질에 의한 질환발생율이 높아지고 사망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볼때 우리나라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毒性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조사,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韓國 毒性學會 朴相大 회장대행(수석부회장·서울대자연대 동물학과교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化學물질에는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식품첨가물, 세제, 기타 가정용품등 대단히 다양하며 이들은 直·間接으로 우리 체내에 흡수되어 癌이나 遺傳病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암을 위시해서 유전병등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난 인체의 결함은 아직도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서 이러한 유전적 활성물질들을 제거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

『우리나라도 급격한 공업화, 산업화로 인한 汚染이 불과 얼마 안있으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毒性物質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朴 회장대행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肺癌환자의 수가 乳癌환자를 능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등 급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속도가 현저한 것만봐도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 朴相大 회장대행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건축자재, 내화재등의 원료로 널리 쓰이는 석면은 폐암등의 發癌물질일 뿐만 아니라 적은 양에 폭로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크라이닝이나 브레이크 패드등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서 有害판정이 내려져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化學약품이나 식품첨가물들이 아무런 제제조치없이 생산·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안타까와하면서 이제 부터라도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대한 정확한 검정·평가와 함께 생산·판매에 대한 법적 제제조치를 가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日本의 경우 이미 60년대부터 이 문제의 중요성을 認知하고 美國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을 수행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독성학분야의 연구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전한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선진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추진, 보다 적극적으로 독성학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겠습니다』 박희장대행은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므로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쉬쉬해온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성학분야를 國策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독성물질의 검정 및 평가, 영향등에 관해 관장하는 國家委員會의 구성과 함께 이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연구인력을 한데 모아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희장대행은 미국립독성연구소에는 박사급연구원만 해도 6백여명에 달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의 1/10에도 못미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우수인력의 양성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기업체에서도 신제품의 개발, 생산을 위한 연구소뿐만 아니라 독성에 관한 전문연구소를 설치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毒性學은 생물학을 비롯해서 동물학, 농학, 의학, 약학, 식품학, 수산·해양학등 관련 인접학문분야가 다양한 학문체계이지요. 따라서 타분야와의 學際間연구를 통한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박희장대행은 물질특허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우리자체능력으로 신물질을 창출해 내야 하는 어려운 현실하에서 독성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진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先進기술의 습득을 통한 이 분야 육성발전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독성학및 관련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4년 11월에 창립된 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 걸친 국제심포지움과 워크숍, 학술대회등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학문발전과 정보교환, 그리고 국제교류에 이바지해온 韓國毒性學會는 관련연구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자문은 물론 독성학의 연구발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이라고 밝힌다.

박희장대행은 앞으로 제약 및 농약제조회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독성물질의 검정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 실제 실험을 통한 강의를 실시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실험지침서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오는 12월초에는 외국학자를 초청,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독성학회에도 대표단을 파견하는등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박희장대행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의 저명학자들을 초청, 국제교류에 힘써 왔는데 보다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보교류를 꾀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학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아쉽다고 말한다.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는 바로 우리생명과 직결됩니다. 事後藥方文보다는 독성의 발생요인을 파악, 미리 제거함으로써 독성물질로부터 우리생명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權光仁 記)